

조계종 중앙·전국신도회 4월29일 통합선언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사단법인 전국신도회가 4월 29일 통합을 선언했다.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는 통합 선언문을 통해 "전국신도회의 역사와 전통을 중앙신도회의 조직과 사업 속에 구현하는 조직통합으로, 자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한국불교 신도의 구성체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는 백창기 중앙신도회장과 선진규 전국신도회장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통합추진위는 향후 △신도회 위상과 역할 강화 △양 신도회의 역량 극대화 △지도역량 강화 등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양 신도회는 6월부터 각 단위별 간담회와 조직 개편작업에 들어가며, 9월 중앙총회에서 관련 중법령 개정안을 상정한다. 9월에는 양 신도회 대의원들이 참가하는 통합대회 위원이 열리며, 10-11월중 공식 통합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하루세번 공양계 암송을 불교여성개발원, 캠페인

'부처님, 이 음식에 깃든 공덕을 감사히 받고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 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 이하 개발원)이 음식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공양계를 간결하게 다듬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4월 7~27일까지 공양계를 공모한 개발원은 공모된 문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양계를 지었다. 개발원은 새로운 공양계를 식탁에 붙여 놓을 수 있는 홍보물로 제작해 4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불자들에게 나눠줬다. 공양계 홍보물은 경기대 사각디자인학부 교수이기도 한 이인자 원장이 직접 디자인했다.

여수령 기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마하보디 사원 보리수 밑에서 불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보드기아=남동우 기자

'마하보디 사원' 보리수 死境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주었던 보드기아 마하보디 사원 보리수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인도 파르나 농업리서치센터는 최근 보드기아 마하보디 사원에 있는 보리수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실험테스트를 거친 결과 유황램프로부터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나무잎에 얇은 층을 형성, 광합성 작용이 저하돼 영양실조에 가까운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나무가 연약해지면서 해충의 감염도 심해져 나무가 죽을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유황램프 가스가 광합성 방해 영양실조·해충감염 피해까지

장 아닐 쿠마싱은 "지난해 6월 마하보디 사원의 보리수 잎이 까맣게 변한 뒤 문제를 알게 됐다"며 "나무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파르나 농업리서치센터는 마하보디 사찰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오염과 감염으로부터 나무를 구하기 위한 치유 조치로 △정기적인 가지치기 △유황램프 사용금지 △2주에 한번 살충제 사용 △프로션 사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보리수 수령은 110년으로 2500여년 전 나무가 6번째 재생된 것이다. 인도 최초의 통일 국가를 세운 아쇼카 대왕(기원전 268~232)이 보리수를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기도 했지만 이후 힌두교 광신도들에 의해 여러 번 잘리고 태워졌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자랐다. 현재 보리수는 3세기 경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로 옮겨진 것을 100여년 전 마하보디 사원 측이 묘목을 가져와 심은 것이다.

한편 유네스코는 2002년 6월 마하보디 사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아이들 마음에 늘 푸른 소나무를...

"아이들 마음에 늘 푸른 소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바로 지금 환경을 살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수령 기자

릴레이 단식기도 회향

노무현 정부의 환경전환 정책 추진과 대선공약 이행 촉구를 위해 조계사 앞 전막에서 진행됐던 릴레이 단식기도에 참여한 선홍스님(동학사학인)의 동참 소감이다.

지울스님(내원사 산감)의 38일 간 단식에 이어 3월 14일부터 원택스님(녹색연합 공동대표) 등 총 68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릴레이 단식기도가 70일째인 4월 30일 회향했다.

남동우 기자



"자비의 선물 받으세요"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군법당과 교도소 등에 자비의 선물을 보냈다. 사진은 4월 29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과 템플라이프 참가자들이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민 기자

의성 관덕동 삼층석탑 도굴·훼손

올들어 두번째 발생, 탑신 크게 부서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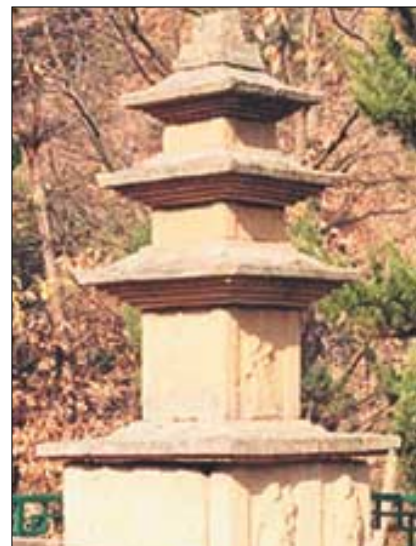
보물 188호인 경북 의성 관덕동 삼층석탑이 도굴 미수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4월 26일 관덕동 삼층석탑의 2-3층 몸돌(탑신)이 해체돼 땅에 내려져 있고 1층 지붕돌(옥개석)이 3분의 1 가량 밀려나온 것을 한 마을주민이 발견, 의성군청에 신고했다. 이번 사

건은 도굴꾼이 도굴을 시도하다 탑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보급 석조문화재가 도굴 미수로 훼손된 것은 지난 3월 전남 화순 쌍봉사 월감선사탑(국보 57호)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관덕동 삼층석탑은 이충기단 위에 세운 삼층석탑으로 아래쪽 기단에는

비천상이, 위쪽 기단에는 보살상과 사천왕상이, 1층 몸돌에는 보살상이 새겨져 있는 통일신라시대 석탑이다. 지난 2000~2001년 해체 보수할 당시 탑 내부의 사리공(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몸돌에 파 놓은 구멍)을 확인했으나 유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형진 기자



▷훼손되기 전 관덕동 3층석탑.



▷탑신이 크게 부서진 모습.

새만금 생명 평화의 날

덩다기공연 등 행사 펼쳐져

새만금 삼보일배 32일째인 3월 30일 천안역에서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행사는 천안지역 길놀이 '덩다기'의 공연,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의 시낭송 등으로 이뤄졌다.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노선재검토위는 면피용?

남동우 (취재1부 기자)

릴레이 단식기도 회향식이 있었던 4월 30일, 조계종 기획실장 원고스님, 내원사 산감 지울스님 등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원고스님은 문 수석에게 "북한산 관동도로 노선재검토 시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적 가치와 역사 문화적 가치도 동등한 위치에 놓고 평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대해 문 수석은 "북한산 관동도로 등은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척된 만큼 청와대가 쉽게 개입해서 조정하기 어렵다. 불교계 요구로 공사 중단과 노선재검토위원회 설치가 이뤄진 만큼 재검토위에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얼핏 들으면 타당한 말이기도 하다.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청와대가 함부로 결정할 시대가 아니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문 수석이 청와대 회의가 있다며 만난 지 15분 만에 자리를 뜨자 원고스님은 대통령 비서실 남영주 국장에게 "당선 전 공약은 차치하더라도 당선 후 1300여 스님들 앞에서 한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 스님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며 북한산 관동도로 등의 문제가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자칫 '용두사미' 또는 '면피' 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산 관동도로 경부고속철도 백지화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원로

회의 유시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공약이라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번 나눔 콜택시
1588-5532

禪

참선교육 (선수행입문서)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화결체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분명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裁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법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 수행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재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종류(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시 음식, 선사 백문 백답, 진제선사 수행문답]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참선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중요성,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수捉와 單提, 화두의 단계, 참선과 법로, 선법문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과 정념즉과, 일체의 법로, 선문 답하는 법, 선사 법문, 조사경책, 재미있는 참선특강(참선은 아무나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참선과 주파수 등) 선사 백문 백답, 원답선사, 정일선사, 영명선사]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 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1대 ~ 80대까지 스님 일대기 (415쪽)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원천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 ③권이 출판되었습니다. 불교서점이나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화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격 1권 4만 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禪) 날연 판매 기부 (15,000원)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禪會

◆선방안내 : 하안거 5월 15일(음 4월 15일) 부터 90일 ◆안거비 : 9만원

육법등 (六法燈)

의정등록제 2002-33243호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이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정단 영가천도를 위한 49개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탁소

(주)동원전기 주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스 : 031)541-1419

충만 및 대리점 모집

